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우 현 경¹⁾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채 진 영²⁾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이 연구는 예비아버지가 아동기에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이 태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알아보고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임신 후반기 배우자를 둔 예비아버지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태아애착은 Condon(1993)의 Paternal Antenatal Attachment Scale(PAAS)로,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를 조소희(2008)가 번역하고 수정한 질문지로, 낭만애착은 Collins와 Read(1990)의 Adult Attachment Scale(AAS)로 각각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통계처리 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은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예비아버지가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안정적인 태아애착을 형성하였으며, 긍정적인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인 낭만애착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예비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동기 원부모애착, 낭만애착, 태아애착, 매개효과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겸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및 Columbia University 방문교수
(E-mail: jychoe@jbnu.ac.kr)

I. 서론

애착은 특정 상대에 대한 정서적 유대 또는 심리적 결속(Bowlby, 1977; Condon, 1993)으로 가장 먼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생의 초기 애착은 이후 전생애에 걸쳐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Bowlby, 1973). 애착이 전생애를 걸쳐 지속되는 특성을 애착 이론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인 내적작동모델로 설명하는데(Bowlby, 1969), 내적작동모델은 기억과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도식(Bretherton, 1985)으로 구성되어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애착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아동기에 부모와 맺은 애착은 이후 성장하여 성인기에 형성하게 되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애착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포함된 양방향적인 관계이며 전생애에 걸쳐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착에 관심을 두어 상대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애착을 알아본 연구들이 부족하며, 아동에 비해 성인기 애착에 대한 연구가 적다.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애착은 자녀의 태내기에 형성되는 태아애착으로 시작된다. 태아애착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기에 대해 부모가 주관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태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리킨다(Condon, Corkindale, & Boyce, 2008; Cranley, 1981). 즉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부모경험이 태아애착이며(Condon et al., 2008), 태아에 대한 태도나 신념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다(Habib & Lancaster, 2010). 안정된 태아애착은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임신기 심리적 적응에 필요한 발달과업이며(Van den Bergh & Simons, 2009), 출생 이후 신생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유미, 김미옥, 2014; 윤지영, 강문희, 2004; Siddique, Haggiliff, & Eisemann, 2000). 이러한 태아애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간호학 분야에서 그 초점을 어머니와 태아에게 두고 진행되었다(권미경, 방경숙, 2011; 김미옥, 2014). 예비어머니의 태아애착은 태교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증진되었으며(유미, 김미옥, 2014), 남편의 정서적 지지나 부부관계의 질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최근 아버지 역시 태아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며 그 경향이 임신한 아내와 비슷하다는 연구결과(채진영, 정혜정, 2015; Condon, 1993; Weaver & Cranley, 1983)들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태아애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하고 자녀의 발달과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자녀의 출생 후 아버지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변인 중 하나는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다. 애착이론에 따르

면 아동기애착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표상적 항상성을 바탕으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Bowlby, 1969). 즉 원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경우 자신을 원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원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Marchand, Schedler, & Wagstaff, 2004)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원가족과의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Couillared, 1999). 이와 같이 부모가 아동기에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표상이 출생한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결혼만족도와 직업경험 등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Luster & Okagaki, 1993)도 있어 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자녀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출생한 자녀에게 형성한 애착관계의 특성이 출생 전 태아애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국내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를 둔 아버지가 아동기 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각각 경험한 애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채진영, 2011)와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을 회상한 내용을 토대로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Main, George, & Kaplan, 1985)에서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아동기 때 아버지와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을 합한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과 태내기 자녀에 대한 애착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과 태아애착의 관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예비아버지의 배우자인 예비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있다. 배우자와의 애착은 성인기 연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낭만애착으로 볼 수 있는데, 낭만애착은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이론에 토대를 두고 설명하는 개념이다(Hazan & Shaver, 1987). 낭만애착이란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낭만적 관계에서 형성된 친밀감으로 안정적 낭만애착, 양가적 낭만애착, 회피적 낭만애착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낭만애착 역시 생애 초기에 주양육자와 맺은 정서적 관계가 이후 대인관계 형성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애착이론의 전제를 따르므로 부모의 낭만애착과 태아애착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낭만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임신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안정적인 낭만애착이 임신부의 심리적 불편감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들(채진영, 2014; Milulincer & Florian, 1999)은 낭만애착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낭만애착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부관계가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예비어머니의 경우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가 태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Cannella, 2005), 부부관계

가 안정되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예비부모 모두의 태아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다(정미라 등, 2012).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배우자에 대한 애착의 질이 태아애착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확인하는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임신부인 예비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남편과의 관계나 남편의 지지가 아내의 태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설명하고 있으나 예비아버지 역시 태아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에 동일한 영향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Habib와 Lancaster(2010)는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이 자신을 아내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예비아버지가 가진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에 따라 태아애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비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과 태아애착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기의 원부모 애착경험은 성인기 낭만애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강진경, 최혜경, 2001; Hazan & Shaver, 1987)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애정적, 온정적으로 회상하는 성인들의 낭만애착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Paker, Barrett과 Hickie(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을 낮게 보고한 성인들의 경우 결혼의 질이 낮고 사회적 결속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예비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역시 과거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예비아버지가 보고하는 아동기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현재 임신 중인 배우자와의 낭만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관계에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낭만애착과 태아애착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애착이론에 근거한 애착표상의 항상성을 확인하고 내적작동모델의 생애발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아버지의 안정된 태아애착 형성을 지원하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및 태아애착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J 지역에서 배우자가 임신 후반기의 접어들어 예비아버지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태아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Fisher, Hammarberg, & Baker, 2008; Yarcheski, Mahon, Yarcheskui, Hanks, & Cannella, 2009)를 토대로 태아애착을 어느 정도 발달시켰을 것으로 예

상한 임신 후반기의 예비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과 같이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아 전체 연구대상의 76% 이상이었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67%가 넘었으며, 53.2%는 가계 월소득 200만원 이하였다.

2. 연구도구

태아애착

Condon(1993)이 요인분석을 통해 아버지용(Paternal Antenatal Attachment Scale: PAAS)으로 개발한 태아애착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학 전공 교수 2인이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도구는 '관계'에 중점을 두어 문제가 제기된 기존의 태아애착 도구(Cranley, 1981; Mercer, Ferketich, May, De Joseph, & Sollid, 1988)와는 달리 임신 회수에 상관없이 '애착'에 중점을 두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부모의 역할보다는 태아에 대한 감정, 태도 및 행동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태아와 함께 한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등 애착의 질, 즉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 10문항과 '나는 아기의 미래 모습을 자주 생각한다' 등 애착을 느끼는 모드에서 태아를 생각하는 시간의 양, 즉 태아에게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 6문항 등 2개의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태아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182)

변수	구분	N(%)
연령	만 26-30세	26(14.3)
	만 31-35세	93(51.1)
	만 36-40세	46(25.3)
	만 41세 이상	17(9.3)
직업	기술, 사무직	100(55.0)
	법률, 의료 전문직	3(1.6)
	교육 관련 전문직	10(5.5)
	자영업 및 서비스업	42(23.1)
	농·어·축산업	4(2.2)
	기타	23(1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12.6)
	2-3년제 대학 졸업	36(19.8)
	4년제 대학 졸업	99(54.4)
	대학원 이상	24(13.2)
가계 월소득	200만원 이하	97(53.2)
	201-300만원	46(25.3)
	301-400만원	19(10.4)
	401-500만원	11(6.1)
	501만원 이상	9(5.0)

인 순서대로 .79, .79이었으며, 태아애착의 전체적인 계수는 .79이었다.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16-20세를 대상으로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도구(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조소희(2008)가 번역하고 성인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아동학 전공 교수 2인의 내용타당성 검증 후 사용하였다. 자신의 아동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상하며 같은 내용의 문항을 아버지와의 애착 경험과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으로 나누어 각각 응답하였다.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셨다' 등의 단일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미가 중복되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애착 경험과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의 Cronbach의 α 계수는 순서대로 .95, .93이었고,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의 전체적인 계수는 .94이었다.

낭만애착

Hazan과 Shaver(1987)가 개발한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AAQ)를 Collins와 Read(1990)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학 전공 교수 2인이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나는 아내를 필요로 할 때 아내가 내 곁에 있어 줄 것임을 안다' 등의 안정과 관련된 6문항, '나는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등의 회피와 관련된 6문항, '나는 종종 아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등의 불안과 관련된 6문항의 총 3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70, .74, .74.이었고,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전체적인 계수는 .76이었다.

3.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J 지역의 산부인과 3곳과 인터넷 동호회 2곳에 모집공고를 내어 참여를 신청한 임신 후반기의 예비아버지를 대상으로 C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들 가운데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정확한 문항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우자가 임신 후반기인 28주 이후가 되었을 때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한 186명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주어졌다. 부실응답 수를 줄이기 위해 연구보조원이 현장에서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한 응답이 포함된 4부를 제외한 후 182부

가 최종자료로 선정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2.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관측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AMOS 20.0을 이용하여 최대우대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를 산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및 태아애착의 수준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배

우자에 대한 낭만애착과 태아애착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중간이상의 수준($M = 3.64$, $SD = .55$)을 보여 예비아버지는 아동기 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편이었는데,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을 좀 더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97$, $SD = .57$).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도 중간 이상의 수준($M = 3.86$, $SD = .44$)을 보였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안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제일 높았다($M = 3.94$, $SD = .50$). 태아애착에 대해서도 중간 이상의 수준($M = 3.85$, $SD = .50$)을 보였고, 태아에 대한 질적인 애착 정도($M = 4.27$, $SD = .47$)가 양적으로 집중하는 정도보다 높았다($M = 3.43$, $SD = .66$). 각 관측변수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왜도값이 2 미만, 첨도값은 7 미만이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Curran, West, & Finch, 1996). 모든 관측변수가 이 기준에 부합하여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표 2.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및 태아애착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N = 182$)

잠재변수	관측변수	<i>M</i>	<i>SD</i>	<i>M</i>	<i>SD</i>	왜도	첨도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아버지와의 애착경험	3.31	.76	3.64	.55	-.23	-.11
	어머니와의 애착경험	3.97	.57			-.07	-.33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안정애착	3.94	.50	3.86	.44	-.62	.41
	회피애착	3.92	.65			-1.21	2.65
	불안-양가적 애착	3.70	.56			-1.37	2.84
태아애착	질	4.27	.47	3.85	.50	-.34	-.01
	양	3.43	.66			.21	-.45

2.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우선 관측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든 관측변수들끼리는 유의수준 .05 ~ .01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상관계수는 .18 ~ .62이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모형을 설정하였고, 이 모형의 적합지수는 GFI = .93, TLI = .94,

CFI = .93, RMSEA = .07로 우수한 편이어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수정 없이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모형을 매개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매개 모형(그림 1)의 계수추정치는 표 4와 같이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beta = .19, p < .01$)과 태아애착($\beta = .20, p < .001$)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비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역시 태아애착에 정적인 영향($\beta = .6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및 태아애착 간의 관계

변수	1	2	3	4	5	6	7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1. 아버지와의 애착경험	1						
2. 어머니와의 애착경험	.35**	1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3. 안정	.22**	.29**	1				
4. 회피	.18*	.19**	.30**	1			
5. 불안	.25**	.23**	.23**	.62**	1		
태아애착							
6. 질	.39**	.30**	.49**	.49**	.42**	1	
7. 양	.40**	.33**	.31**	.25**	.19**	.54**	1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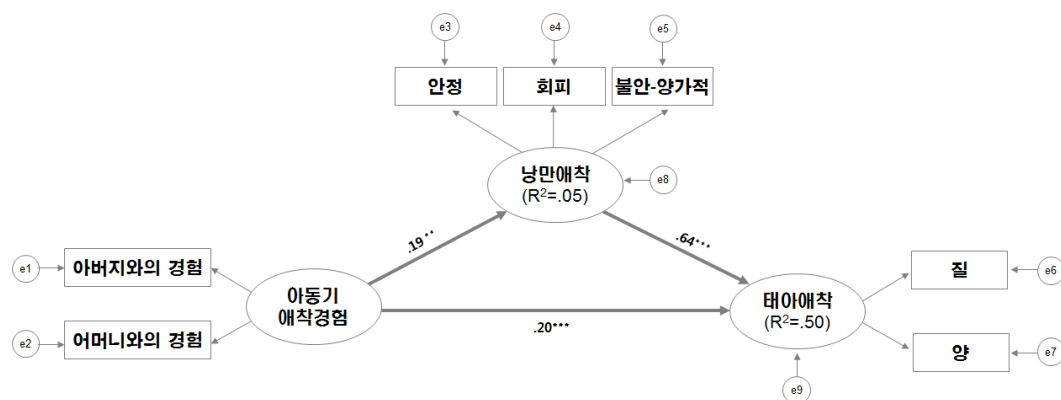


그림 1. 매개모형

** $p < .01$. *** $p < .001$.

표 4. 매개모형의 잠재변수 계수 추정치

계수 경로	<i>B</i>	β	S.E.	C.R.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 낭만애착	.12	.19	.02	2.43**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 태아애착	.15	.20	.03	3.34***
낭만애착 → 태아애착	1.27	.64	.29	4.43***

** $p < .01$. *** $p < .001$.

표 5.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변수		bootstrapping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낭만애착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19**		.19**
태아애착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20***	.12**	.32***
	낭만애착	.64***		.64***

* $p < .01$. *** $p < .001$.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보이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유의수준 .01 ~ .001에서 모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태아애착에 정적인 직접효과($\beta = .20, p < .001$)와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을 거쳐($\beta = .19, p < .01$) 태아애착에 정적인 간접효과($\beta = .12, p < .01$)를 보여, .32의 정적인 총효과를 보였다($p < .001$). 즉,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1 표준편차씩 증가할 때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태아애착은 .33 표준편차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예비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이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며, 예비아버지가 아동

기 원부모 애착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도 안정적이며 이렇게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의 영향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예비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은 동시에 태아애착에 높은 정적인 직접효과($\beta = .64, p < .001$)를 지녀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임신 후반기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 및 태아애착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검증을 통해 예비아버지가 아동기에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경험이 태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예비아버지들은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배우자와 태아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부인과와 인터넷 동호회 광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연구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비아버지들인 만큼 원부모와의 애착경험이나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및 태아애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참여한 예비아버지들의 태아애착이 가지는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같은 조사도구인 PAAS를 사용한 Habib와 Lancaster(2010)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아내가 임신후기인 예비아버지들의 태아애착이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아버지들이 호주아버지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태아애착을 보였고 태아애착의 양과 질을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질적인 애착 정도가 더 높았다.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한국예비아버지들과 호주예비아버지들의 태아애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에 나타나는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태아애착의 질과 양의 수준 차이는 태아와 분리되지 않는 임신부와 달리 태아의 존재를 느끼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비아버지들의 경우 태아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으로서의 양보다는 태아를 생각할 때 느끼는 정서, 즉 애착의 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에서는 현실적으로 태아애착을 강화하기 위해 애착의 질 측면에서 예비아버지들이 충분한 태아애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낭만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과 태아애착의 관계를 낭만애착이 부분매개할 경우,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예비아버지가 아동기에 경험한 원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태아에게 느끼는 애착이 강하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원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archand et al., 2004; Coullared, 1999)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인 낭만애착이 안정적인 태아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이 자신을 배우

자의 정서적 지지자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높았다는 선행연구(Habib & Lancaster, 2010)와 같은 방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비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태아애착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태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미라 등, 2012)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동시에 아동기의 안정된 원부모 애착경험이 배우자에 대한 안정된 낭만애착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뿐 아니라 성인기의 낭만애착과도 관련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결과(강진경, 최혜경, 2001; 진미경, 2009; Hazan & Shaver, 1987)들과 일치한다.

수직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인 태아애착과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에 더해 수평적인 부부관계에서의 낭만애착을 알아봄으로써 이 연구는 애착의 전생애적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 성인기 낭만애착, 태아애착으로 이어지는 애착 표상의 항상성은 생애 초기 원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애착이론이 주장하는 내적작동모델의 생애발달(Bowlby, 1969)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즉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된 내적작동모델은 애착체계가 표현되는 방식을 형성하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양식으로 나타난다는 점(Main, 1991)에서 애착항상성의 기제가 될 수 있다.

예비아버지의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

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예비아버지의 낭만애착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전 연구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예비아버지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대해 형성한 낭만애착이 태아애착과 관련된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즉 예비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안정된 애착은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력이 아동기 원부모와의 애착경험보다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준비하는 배우자와 형성한 안정적인 낭만애착 관계가 예비어머니 뿐만 아니라 예비아버지에게 있어서도 태아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해 Bowlby(1988)가 내적작동모델에 대해 항상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조정되고 재구성되며 보다 정교해지는 능동적이 구조로 보았던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애착의 주욕구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친밀한 관계들에 의해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Main, 1991)를 참고할 때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은 바뀔 수 없으나 배우자와의 낭만애착은 현재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경우 예비아버지의 애착표상이 보다 긍정적으로 재구성되어 태아애착이 강해질 것이다.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정태교를 통해 태아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으며 출생 후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예비아버지가 안정적이고 강한 태아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먼저 배우자 애착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적으로 부부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을 알아보고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아동기 원부모에 대한 애착경험과 배우자에 대한 낭만적 애착을 살펴봄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별히 원부모와의 애착, 낭만 애착, 태아애착으로 이어지는 내적작동모델의 항상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예비아버지를 대상으로 태아애착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밝혀 기존에 주로 실시된 예비어머니 연구와의 비교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내용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연구대상의 선정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변수들 중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만을 다룰 수 있었다. 앞으로 예비아버지의 태아애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넓힐 수 있도록 생

활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내적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비어머니 연구에서 태아애착과의 관계가 밝혀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예비아버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상황과 자녀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문화적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경, 최혜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 권미경, 방경숙 (2011). 임신 중 스트레스, 우울과 모-태아 애착 및 태아체중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41(2), 276-283.
- 김미옥 (2014). 불임 치료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 및 태아애착.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2), 163-172.
- 유 미, 김미옥 (2014). 태아애착에의 영향요인: 임부의 피로, 사회적지지, 태교 실천.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4), 247-254.
- 윤지영, 강문희 (2004). 임신 중 태아와의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신생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57-175.
- 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관계. *대한가정*

- 학회지, 50(4), 51-61.
- 조소희 (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 분화가 핵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경 (2009). 성인의 원부모와의 애착 표상과 낭만적 애착 및 아동기 양육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1), 117-128.
- 채진영 (201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75-83.
- 채진영 (2014). 임신 후반기 여성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낭만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1(4), 25-41.
- 채진영, 정혜정 (2015).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9-10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nnella, B. L. (2005). Maternal-fetal attachment: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0(1), 60-68.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ndon, J. T. (1993). The assessment of antenatal emotional attachment: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6(2), 167-183.
- Condon, J. T., Corkindale, C. J., & Boyce, P. (2008). Assessment of postnatal paternal-infant attachment: Developmental a questionnaire instrument.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6(3), 195-210.
- Couillared, M. (1999).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Cranley, M. S. (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9(5), 281-28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isher, J. R., Hammarberg, K., & Baker, G. H. (2008). Antenatal mood and fetal attachment after assisted conception. *Fertility and Sterility*, 89(5), 84-89.
- Habib, C., & Lancaster, S. (2010). Changes in identity and paternal-foetal attachment across a first pregnancy.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8(2), 128-142.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 Main, M.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 vs. multiple model of attachment.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London: Tavistock/Routledge.
-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rchand, J. F., Schedler, S., & Wagstaff, D. A. (2004). The role of parents' attachment orientation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 behaviors in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449-462.
- Mercer, R. T., Ferketich, S., May, K., De Joseph, J., & Sollid, D. (1988). Further explor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fetal attach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1(2), 83-95.
- Milulincer, M., & Florian, V. (1999). Maternal-fetal bonding, 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during pregnancy -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3), 255-276.
- Pa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877-880.
- Siddique, A., Haggiliff, B., & Eisemann, M. (2000). Own memories of upbringing as a determinant of prenatal attachment in expectant wom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18(1), 64-74.
- Van den Bergh, B., & Simons, A. (2009). A review of scales to measure the mother-fetus relationship.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7(2), 114-126.
- Weaver, R. H., & Cranley, M. S. (1983). An exploration of paternal-fetal attachment behavior. *Nursing Research*, 32(2), 68-72.
- Yarcheski, A., Mahon, N. E., Yarcheskui, T. J., Hanks, M. M., & Cannella, B. L. (2009). A meta-analytic study of predictor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5), 708-715.

1 차원고접수 : 2016.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3.

최종게재결정 : 2016. 12. 02.

The Influence of Fathers-to-be's Attachment Experience to Parents of Origin in Childhood on Their Fetal Attachment: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Romantic Attachment

Woo, Hyun-Kyung
Dept. of Child Studies,
Myungji University

Chae, Jin-Young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athers-to-be's attachment experience to parents of origin in childhood on their fetal attachment, with their romantic attachment to their partner as a mediating factor. The subjects consisted of 182 men in J province in Korea who completed measures on three attachment scales during the third trimester of their partner's pregnancie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s, Cron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ough AMOS 20.0.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s of fathers-to-be's attachment experience to parents of origin in childhood, romantic attachment and fetal attachment were all above the corresponding median scores. Second, the model proposed by this research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s an analysis tool, showing that a romantic attach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a fathers-to-be's attachment experience to parents of origin in childhood and fetal attachment, which was further shown by means of bootstrapping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fathers-to-be to feel securely attached to their wives in order to form a strong fetal attachment.

Keywords: fathers-to-be's attachment experience to parents of origin in childhood, romantic attachment, fetal attachment, mediating effect